

# 일자리 개혁·보육 국가책임...국민 '삶의 질 높이기' 역점

## 文대통령 신년회견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차를 맞은 새해에 추진할 국정운영기조와 관련, 삶의 질 향상을 모토로 하는 '삶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기조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치와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의 자질 없는 실행을 다짐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주거·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2000개의 스마트공장 신설, 스마트 시티의 모델 조성 등을 통해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경제의 일원인 제벌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

## '적폐'는 단 두 차례만 언급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 "올해가 한반도 평화 원년"

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규정,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기 첫째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폐청산'과 관련해 올해 신년사에서 '적폐'라는 단어가 두 차례만 언급되는데 그쳤으며 '청산'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시한을 2월말로 제시했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국정 기조의 다른 한 축으로 내세웠

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꼭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며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 등 어떤 만반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대응기조를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질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 민주당 "새로운 통찰 제시"...한국당 "자화자찬 말잔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이라고 호평하는 데 반해 야권은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혹평하는 등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혁신·공정·안전·안보·평화·

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

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은 보여주기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소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 이제와서 바꾼다고?

### 市-FINA 14~17일 협의

### 경기장 변동·준비 전반 재논의

광주시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다시 만나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주경기장 변경 등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재논의한다. 대회 개막이 1년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주경기장 변경이 논의되고 일부 경기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아 대회 차질 우려도 낳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4일~17일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 등이 광주를 찾아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시설 등 대회 개최 준비에 대한 현안 사항을 협의·조율한다.

이들의 이번 방문 목적은 예산확보 등 대회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경기장 등 대회시설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와 FINA는 주경기장을 남부대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오픈워터 경기장도 확정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는 FINA측과의 협의를 통해 경기장 확정 등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 따라 주경기장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실제, FINA측은 지난해 11월 광주를 찾아 진월테니스장 임시포로 결정했던 수구 경기장을 남부대로 옮기는 등 경기장 변경을 요구했었고, 이를 관철시켰다. 당시 FINA측은 주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양측이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당시 광주시는 경영과 다이빙 경기장은 남부대 수영장에, 아티스틱(싱크로나이즈) 수영장은 영주체육관에 설치하기로 FINA측과 협의했다. 남부대의 경우 임원·선수 통로 등 수영장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 영주체육관은 워업 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러던 하이다이빙은 '시가지 조망권'을 고려

해 조선대 운동장으로 결정했었다. 조선대 본관 건물과 광주 도심을 배경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며, FINA의 요청에 따라 2019년 5월 예선전을 겸한 하이다이빙 테스트 이벤트 대회'도 개최하기로 협의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FINA측이 대부분의 경기를 주경기장 일대에서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부대는 다소 좁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재 주경기장 변경은 예산이 추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최대한 주경기장 변경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종목의 개최 장소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 개최가 가장 유력하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월 1일~2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FINA다이빙 월드컵퍼스에 참가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준비사항, 다이빙 경기장과 경기 프로그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그 날'의 염원 '헛된 꿈'은 아니었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11) '1987'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감동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픈 게 보편적 정서라고 한다. 영화 '1987'을 관람하고 난 후에는 반대로 혼자서 말없이 좀 오래 걸었다.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 가득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함께 흘러나오던 이한열 합창단의 노래 '그 날이 오면'을 속으로 따라 부르며 민주화운동 최전선에 섰던 그 때 그 청년들이 염원했던 '그 날이 '헛된 꿈'은 아니었다는 위로를 하고 싶었다. 그 때, 그 역사적 순간에 그 청춘들과 또래였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세삼 자문하면서 말이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시작으로 이

한열 열사 사망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를 담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 건 순전히 영화의 힘이다. 영화를 보면서 서술 퍼낸 공간 탄압과 폭력, 그 분노의 시대를 다시 기억하고 연대하고 공감한 이들이 많다.

영화 '1987'을 관람 중 내내 생각했던 그림 한 점은 목수화가로 불리는 최병수작가(1961~ )가 1987년에 제작한 걸개그림 '한열이를 살려내라'였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피 흘리는 이한열을 부축하는 모습은 당시 숨죽여 지내던 보통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오게 했고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게 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걸개그림은, 부직포에 수성페인트와 아크릴로 그린 그림이라 어둡고 흐린 상태이지만 진품만이 지닌 아우라를 발산하면서 흐릿한 기억 속의 이한열 열사를 오늘 다시 광장으로 이끌어낸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게 한다. 당시 로이더통신 특파원이었던 정태원기자



최병수작 '한열이를 살려내라'

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걸개그림으로 옮긴 이 그림은 이한열 열사 장례를 치를 때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걸렸고 여러 판형의 목판화로 제작되어 시위 현장에 직접 쓰이기도 했다.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그림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렸고, 오늘 이 한 편의 영화가 다시 그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광주비엔날레재단광주플리부장·미술사박사>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메이저리, 기아 타이거즈 서재용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